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‘18. 6. 2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친환경 태양광 만든다고..작년 여의도 2배 넘는 숲이 사라졌다
(‘18. 6. 20, 조선일보)

1. 기사내용

- ☐ 협동조합과 한전 간의 갈등으로 학교 태양광 설치가 지지부진하고, 국내 태양광·풍력 발전 효율 저조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☐ 한전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학교태양광사업 갈등해소를 위해 공동 실무TF를 구성(18.5월)하여 협력방안을 마련중
- ☐ 일사량(獨 900~1,200kWh/m², 韓 1,400~1,600kWh/m²)이 적어 이용률(獨 10.6%, 韓 14.7%)이 우리보다 낮은 독일의 발전단가*가 우리보다 저렴한 것을 감안할 경우, 향후 우리 태양광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

* (獨) 90원/kWh (출처 : Bloomberg New Energy Finance, '18.5월)

(韓) 150원/kwh(출처 :에너지기술평가원, '17년)

※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전병근 과장(044-203-5370)
정대환 사무관(044-203-5372)